

水害地域 温情 잇달아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 큰 水害를 입은 영남지방의 수해복구 작업에 전국 建築士들의 温情이 잇따르고 있다.

本協會 全國會員일동은 지난달 30일 한국일보사에 수재의 연금 1천1백10만3천원을 기탁한데 이어 각 시도 建築士회 및 분회별로 수재민돕기 성금을 모금, 전달하는 한편 특히 수재피해가 극심했던 경상북도건축사회(회장 崔種培)의 경우 관내 1천여동의 전파, 반파 수해주택(85㎡이하)에 대해 설계 및 감리비를 전액 면제키로 하고 수해복구작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경상남도건축사회(회장 崔鳳亭)에서도 도내 피해주택 1백여동에 대한 설계비 50%를 감면키로 하여 훈훈한 온정의 손길을 뻗었다.

각 시도 建築士회별 수재의연금 기탁현황은 다음과 같다.

- 吳雲東회장外 전국회원일동 1천1백10만3천원-8.30 한국일보사

- 부산직할시건축사회 회원일동 2백6만원-8.31 부산일보
- 인천직할시건축사회 회원일동 1백만원-9.5 인천일보사
- 경기도건축사회 회원일동 3백만원-8.9 경기도청
- 고양분회 5십만원-7.25
- 송탄분회 1백6십만원-7.30
- 부천분회 7십만원-7.27
- 안양분회 57만7천원 상당의 생필품-7.29
- 충청북도건축사회 회원일동 1백만원-9.2 충청일보사
-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원일동 2백만원-9.2 경남신문사
- 울산분회 2백만원-9.2
- 삼천포분회 30만원-9.4
- 충무분회 1백만원-9.2
- 김해분회 1백만원-9.2
- 진주분회 30만원-8.31
- 제주도건축사회 회원일동 1백만원-9.2 제주신문사

한편 경기도건축사회(회장 李一潤)는 지난 7월31일 경기도청을 방문, 전경위문금 1백15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ARCASIA 代表團 파견

本協會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中國 北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ARCASIA) 이사회 및 토론회(FORUM 6)에 吳雲東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한다.

ARCASIA理事國으로서 매년 개최되는 정례이사회 참가와 더불어 '아시아에서의 대단위 집단 공동주택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주제로 6회제를 맞는 토론회에 참석, 아시아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택공급 문제를 심도있게 토론,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택 공급계획에 적극 동참함을 물론 외국의 건축관련 신기술 및 정보 습득을 통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될 이번 대표단 활동은 또한 본 협회측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측의 참석을 유도함으로써 남북建築士界의 교류가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어지고 있다.

日 建築士會 全國大會에 대표단 파견

本協會는 오는 26,27 양일간 개최되는 日本 建築士會 제34회 全國大會에 5인 공식대표단을 파견, 결연단체인 양協會간

의 우의를 돈독히하고 상호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會員사무소 CAD이용실태 설문조사

지난 6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건축사사무소의 CAD이용실태 파악 및 향후 전산화의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본 협회 건축전산위원회에서 실시한 CAD이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회원사무소에서 향후 업무전산화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총 835통이 회신된 이번 설문조사결과 응답자 835명 중 전산화 실시 사무소가 267개소(32%), 전산화 계획 사무소가 530개소(63.5%), 전산화 계획이 없는 사무소는 38개소(4.5%)로 구분되었으며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무소 568개소중 93.3%인 530개소가 향후 전산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산화 계획년도는 1992년도가 231명(43.6%)으로 가장 많고 1993년도가 147명(27.7%), 1991년도는 91명(17.2%)이 응답하여 향후 1,2년내에 전산화 하겠다는 회원이 응답자중 469명(88.5%)으로 나타났다.

현재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질문에서 사무소에 컴퓨터 설치 및 CAD이용 최초 년도는 90년도 설치가 80명(30%)으로 가장 많았고 CAD 최초 이용년도는 90년이 102명(38.2%), 91년 78명(29.2%),

89년 44명(16.5%) 88년이 14명(5.2%)순으로 89년 이후가 응답자의 224명(83.9%)으로 나타남으로써 최근 2~3년사이 산업계 전반에 불어온 컴퓨터 그래픽의 확산이 건축 설계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닌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의 사용분야는 (복수응답) 실시도면 작도가 229명(30.3%), 구조해석이 106명(14%), 문서작성이 158명(20.9%), 사무소관리가 111명(14.7%) 등으로 나타났는데 89년도 조사시에는 구조해석분야 이용이 35%였고, CAD분야(실시도면 작도)가 12%였던 것으로, 컴퓨터 사용 용도가 복잡한 수치계산을 처리하던 구조해석 분야에서 CAD분야로 주 활용 경향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전산화시 컴퓨터의 활용분야에 대한 질문에서는 (복수응답) 실시도면 작도가 478명(23.6%)이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구조해석이 362명(17.9%), 투시도 319명(15.7%), 사무소 관리가 294명(14.5%)으로 나타나 이미 전산화한 회원이 건축설계분야에서 활용이 미흡한 반면 향후 전산화 계획 회원은 건축설계분야에서의 많은 활용을 예상하고 있었다.

全國建築士大會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본협회에서는 올해로 3회째 개최한 전국건축사대회의 개최성과 점검과 향후 발전방안의 토대를 마련키위해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20일동안 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총 949명중 767명(80%)이 매년 대회개최를 원했으며, 개최지로는 서울위주에서 벗어나 지방에서도 순회하며 개최할 것을(60%) 원했다. 연수와의 병행문제에 있어서는 80% 회원이 전국건축사대회와 병행할 것을 원했으며, 예산확보방안으로는 일부협회예산과 대회부대사업으로 충당할 것을 원했다.

그리고 행사내용의 보완문제에 있어 토론, 강연, 작품전시 프로그램을 늘려줄 것을 원했으며, 개최시기는 11월중 정기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것을 다수회원이 희망했다.

건축사 면허 취소

건설부는 건축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부정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박재동씨(면허번호 제4484호)에 대해 지난 27일자로 면허취소조치를 취하였다.

공간아트아카데미 '91 하계건축학교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는 80년초 故김수근회원의 발의로 시작된 공간아트아카데미의 일환으로 “變換”이라는 주제로 지난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공간아트아카데미 '91 하계건축학교를 실시하였다.

전국 각 대학(원) 건축학과 및 설계실무 5년이하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와 서류심사를 통해 40명의 학생은 선발하고 김광현, 김병윤, 도창환, 동정근, 민경식, 승효상, 신기철, 우경국, 이상림, 조성룡 등 10인의 건축가가 튜터로 참여한 이번 하계건축학교는 7월31일 개교식에 이어, -일본 후쿠오카시 넥사스월드(Nexus World, 코디네이터 아라타 이소자끼) 비디오 감상과 좌담(우경국, 장세양)(7.31) -김수근건축전 비디오 감상 및 김수근건축에 대한 즉석토론(우경국, 장세양)(8.1) -1차 내부평가: 학생들의 발표와 교사들의 토론 -조성룡·우경국 씨가 '유럽건축 新기행'이라는 타이틀로 슬라이드쇼(8.2) -최종안 평가 및 전시장 디스플레이 및 스튜디오 주변 정리(8.4)의 順으로 진행되었으며 8월17일 공간포럼에서는 공간아트아카데미의 전과정을 비디오로 공개하고 작품평가 및 Open Critic이 있었다.

이 행사는 올해로 처음 실시되는 건축아카데미로 앞으로 공간의 주요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全南大 본관 현상설계경기 발표

전남대학교가 지난 5월 일반현상공모한 전남대 본관의 설계경기 당선안에 종합건축사사무소 단우·모람(대표 崔命喆)案이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졌으며,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대표 柳翼鉉)案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대표 韓鍾彦)案을 우수작으로 선정, 각 3백만원이 지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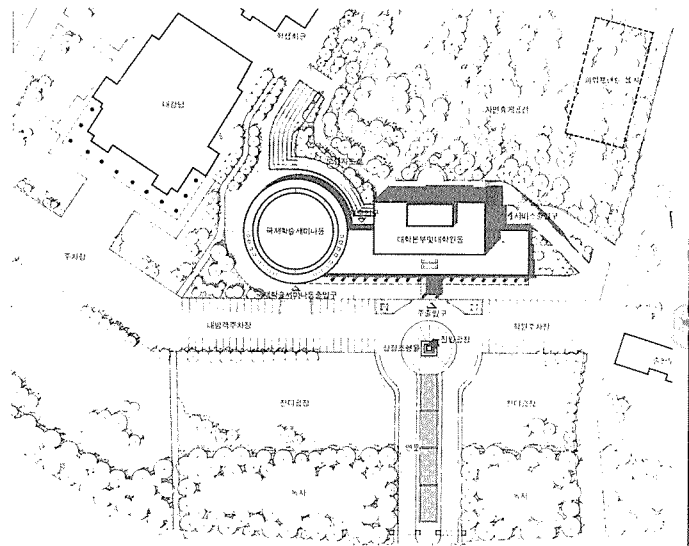
이번 설계경기의 공모지침은 부지면적 30,000㎡(9,090평), 건물규모 9,500㎡(2,878평)에 당초 마스터 플랜이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캠퍼스의 장기적 발전을 상징하는 진취적이

고 미래지향적인 구심적 건물로, 대학의 상징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비교적 완만한 구릉지와 평지의 경계지역으로 북측에서 남측으로 경사지어 흐르는 듯한, 지형상 요지인 볼록하게 튀어나온 낮은 구릉지에 위치한다.

전남대 본관은 대학본부 및 대학원동과 국제학술세미나 등의 기능을 수용하는 건물로 각 기능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설계의 관건이 되었으며, 캠퍼스건물로 아카데미학 상징성과 현대성이 요구되었다.

당선작

종합건축사사무소단우모람(대표 崔命喆)案



대지면적/11,400㎡
 건축면적/2,554.6㎡
 -대학본부 및 대학원동/1,433㎡
 -국제학술세미나동/1,121.6㎡
 -건축연면적/9,407.5㎡
 -대학본부 및 대학원동/7,109㎡
 -국제학술세미나동/2,298.5㎡
 규모/지하 1층, 지상 9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마감/화강석버너마감+화강석
 뿔칠(애벌 그래니트)
 주차대수/53대

전남대 본관 설계경기 당선작인 단우모람 건축案



투시도

배치계획

대지는 접근성과 본관의 상징성 등으로 인해 남쪽의 강한 정면성이 요구되며, 정문과 후문을 잇는 중심도로변으로 공식적인 접근은 정문이지만, 신시가지 개발로 후문쪽의 진입동선이 중요시된다.

· 축: 기존 건물과의 연계 및 지형에 따라서 동서로 길게 배치하고 주진입 방향을 고려하여 남쪽에 강한 정면성을 부여함으로써 동서의 기능적 축을 형성하고 남북의 시각적 축을 부여한다.

· 동선: 중심도로의 산만한 보행동선을, 전면광장 및 회랑을 설치함으로써 저층부 전면에서 주흐름이 형성되도록 하고 후면의 녹지와 연계된 동선은 소극적인 동선처리로 전면의 활기찬 동선과 분리시킨다.

· 매스: 기존 녹지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등고선을 따라 동서로 길게 저층부를 배치하고, 강한 정면성을 갖는 고층부를 배치하여 본관의 상징성을 강조한다. 서측 대강당의 육중한 매스와 본관 고층부의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원형의 국제학술세미나동을 배치한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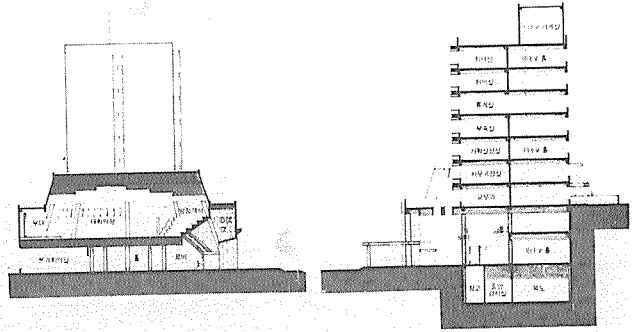
본부, 대학원동 및 국제학술세미나동을 단일건물로 계획하여 각 동의 지원시설을 같이 사용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저층부에 로비 및 휴게실 등의 공용부분을 국제회의장의 로비와 연결시키고 전면에 회랑을 두어 서로 다른 기능과의 유기적 결합 및 내외공간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킨다.

본부 및 대학원동의 기본모듈은 3.6m×3.6m로서, 각 실의 레이아웃은 7.2m×7.2m를 기본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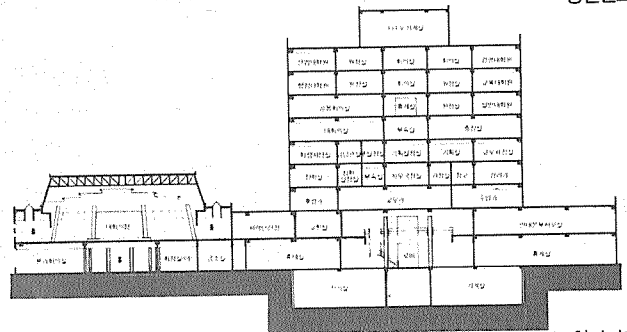
입면계획

저층부는 등고선을 따라 배치하고 석재로 마감하며 정면에 회랑을 두어 기존건물의 이미지를 수용하고, 주출입구는 2개 층 높이를 후퇴시킴으로써 건물의 정면진입을 강조한다. 고층부는 건물정면에 3.6m×3.1m의 차양을 뚫으로써 규칙적이고 통일감있는 정면성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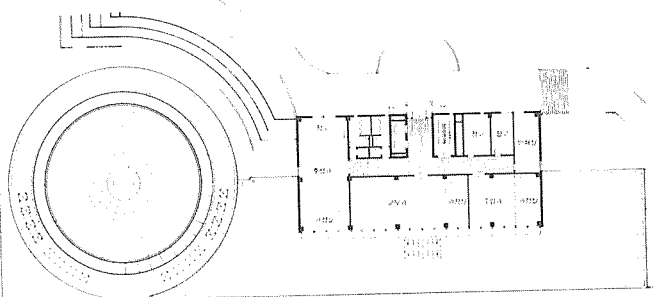
저층부의 Solid한 Podium위는, 0.9m 돌출된 차양에 의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음영효과를 갖는 입면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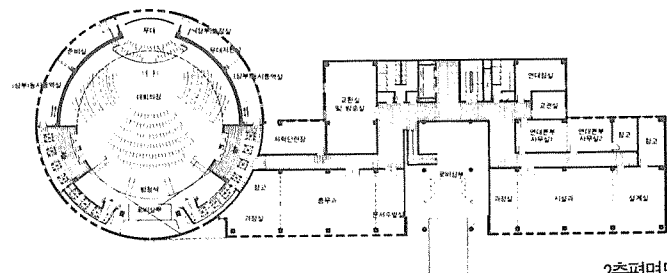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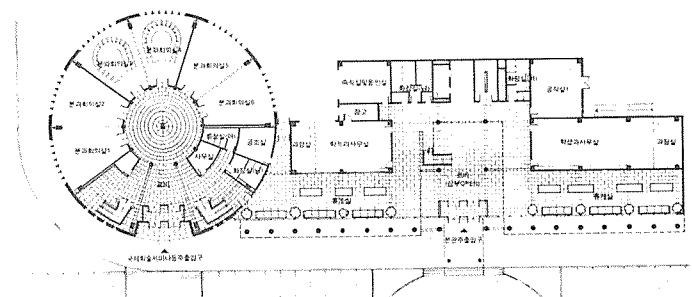
횡단면도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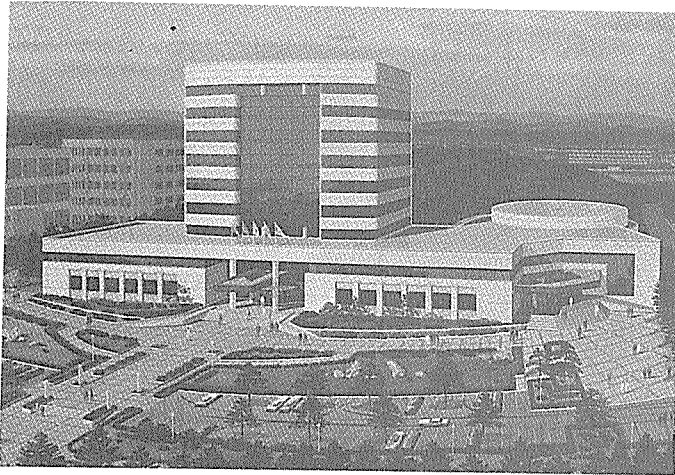
2층평면도



1층평면도

우수작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대표 韓鍾彦)案



배치계획

대학행정의 중심인 대학본부 및 대학원동 그리고 국제학술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동 등 3개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치가 요구되었다.

건물은 남북의 방위축과 동서의 도로축이 교차하는 방사상의 형상을 이룬 중앙부에 위치한다. 좌측으로는 대강당의 방향성을 가진 축이 형성되어 있으며, 우측으로는 구릉으로 이어지는 자연축이 있어 대강당축과 자연대축의 완충적인 새로운 축으로 의도했다.

남남동향을 제외한 모든 방향에서 저층부의 시야가 단절되며 수목과 주위건물에 의한 대지의 시야 단절로 본 건물의 랜드마크적인 고층부가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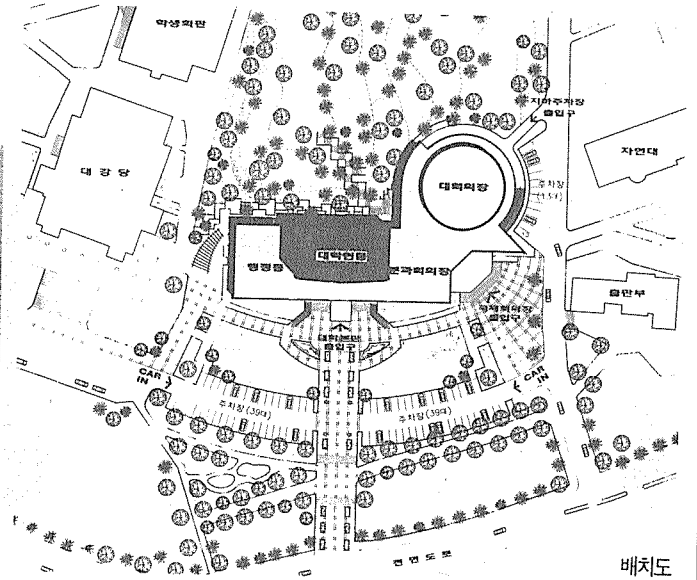
계획대지 전후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대강당 전면과 자연대 좌측면의 형태를 유지시키며, 평지에 전면 주차공간을 배치하였다. 진입-녹지-주차-녹지-건물-후정의 개념을 도입하여 중심성과 대칭성을 갖는 건물 및 조정배치로 통일성, 안

정성을 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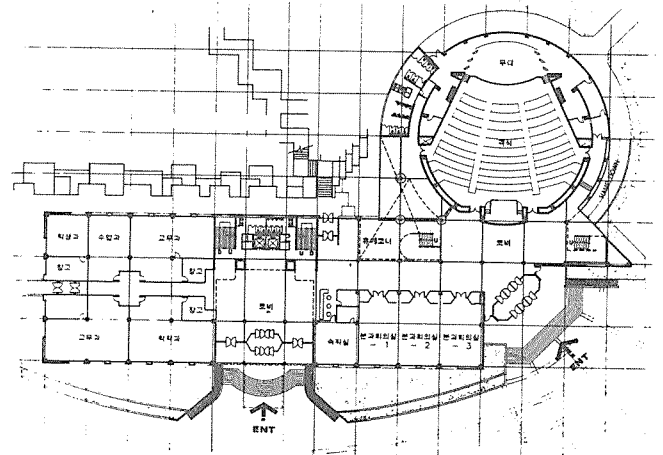
진입축에 따라 전면도로-도로변녹지-휴게공간-건물전면녹지-본부·세미나동 후면으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소공간을 연출했다. 중앙접근로에 상징성을 부여했으며, 본부 및 자연대와 전면공간의 연결성을 부여했다.

건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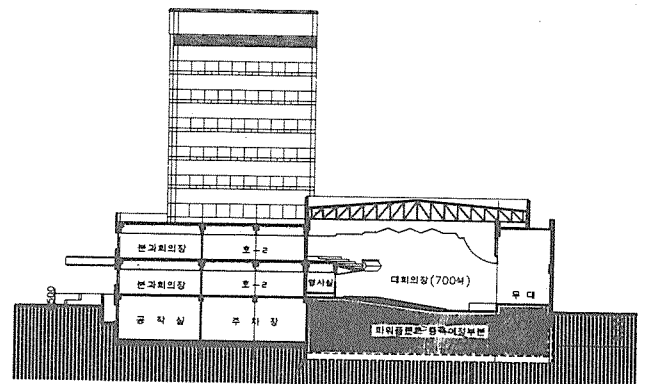
저층부는 Podium으로 안정감을 주었고 고층부는 인식성을 강조했다. 세미나동은 기능을 고려하여 원형매스를 선택했으며, 본관과의 연결은 삼각형 매스를 사용하여 인식성과 출입구의 기능을 수용했다. 전체적인 외관은 좌우대칭으로 정면성이 강조되었고, 저층부는 기존의 건물 및 주위 자연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시각적 안정감을 추구했다. 또한 고층부의 수평면과 저층부의 수평면으로 수직적인 요소의 완화와 비례로 조형 질서를 정립했다.



배치도



1층평면도



단면도

대지면적/11,400㎡
 건축면적/3,224.10㎡
 연면적/9,899.44㎡
 -대학본부/5,806.08㎡
 -대학원/1,328.40㎡
 -국제학술세미나동/2,764.96㎡

규모/지하 1층, 지상 8층
 구조/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강당/철골트러스조)
 주차대수/97대(옥내6대, 옥외91대)
 외부마감/T-30화강석진다듬
 T-24mm 복층반사유리

우수작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원(대표 柳翼鉉) 案



계획대지면적/28,000㎡
 건축면적/2,735.07㎡
 연면적/9,504.13㎡
 건폐율/9.77%
 용적률/31.15%

규모/지하 1층, 지상 10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철골골드러스조
 주요마감재/회강석 버너구이

배치계획

남측 진입로가 현재 황으로 지나고 있으나 운동장과 연못에 대로가 접해 있어 향후 대지 정면으로 주진입로의 유입 가능성을 구상, 강한 축을 암시하고 있다. 신축부지의 진입로로부터 후면 녹지대까지의 자연적 구릉이 강한 모티브가 되는 축과 동서의 연결통로를 자연스럽게 포용하는 1차적인 기능축은, 자연적 상승감을 통한 캠퍼스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상승의 축이다.

북측의 녹지대 확보를 위하여 본 건물을 남측으로 배치, 녹지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정면에 상징적 광장을 두어 정면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주축을 중심으로 점진적 공간의 변이를 추구하였으며 단계적 변화를 유도하였다.

평면계획

평면의 형태는 대학의 기본이

념에 따라 세계를 주도하고 포용하는 듯한 양 날개를 두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표출시키기 위하여 상승감을 고조시키는 형태로 계획했다. 대학본부와 국제학술세미나 강당을 분리 동선으 혼잡을 피하고 대학원동을 학생민원동과 수직적으로 분리했다.

코어는 양분하여 공간상의 유통성을 부여하고 각 기능의 연결부에 완충공간을 두었다.

입면계획

곡선형의 저층부 양 날개는 강한 포용력의 상징이며, 중앙의 고층화된 매스는 미래에 대한 진취적인 기상을 표출이다.

국제학술세미나 강당의 육중한 매스는 끊임없는 정열의 바탕이며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형태의 이미지 색채 및 재료의 통일은 전체적 통일 의미하며 정연한 형태를 추구한다.

